

## 한·유라시아 부품소재 기술협력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한·유라시아 부품소재 기술협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보유기술 소개행사 이후 양국기업 및 연구소간 협의를 바탕으로 14일 (주)큐플리스 등 14개 기업이 원하는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현지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도입될 기술은 플라즈마 응용기술, 주단조, 열/표면처리, 금형, 소성가공, 광학기술 등 14건이며, 특히 금속표면처리 등은 유라시아권의 독자적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이다.

산자부 김경중 자본재산업총괄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함은 물론, 유라시아측, 우리측 연구원이 기업기술책임자와 공동 수행함에 따라 기술습득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과의 협력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라시아권과의 기술협력이 언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지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5월 중 제2차 "기술 소개행사"를 실시, 우리기업에 대한 유라시아권 기술 이전을 더욱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미국 캐스피안네트웍스, 국내 R&D센터 설립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벤처기업 캐스피안 네트웍스(Caspian Networks)가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다.

진대제장관, 캐스피안 네트웍스의 Bradford Wurtz 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환원장은 네트워크 품질보장 시스템 개발 및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하는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캐스피안 네트웍스와 ETRI는 광대역통합망(BcN)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인력도 처음에는 15명 수준에서 내년말까지 50명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올 7월부터 ETRI와 네트워크 품질보장을 위한 QoS 기술을 공동개발해 온 캐스피안 네트웍스는 ETRI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네트워크 기술개발과 자사의 품질보장 기술을 결합해 고품질의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위한 R&D센터를 세우게 됐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이번 R&D센터 설립은 해외벤처기업과 국내 국책연구기관간의 긴밀한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 적극적인 R&D센터 유치노력으로 인텔, IBM, 프라운호퍼, HP 등의 R&D센터를 설립했고 독일 지멘스의 경우도 M&A 방식을 통한 한국내 R&D센터를 유치했다.

아울러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도 내년도 한국 R&D센터 설립을 위해 각각 정보통신연구진흥원, ETRI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와 같이 세계 우수기업의 잇단 R&D센터 유치가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우수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의 국내 R&D센터 설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호주, 일본 등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다각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스피안 네트웍스는 1999년 미국 산호세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150여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업체다.

[출처: 산업자원부]

